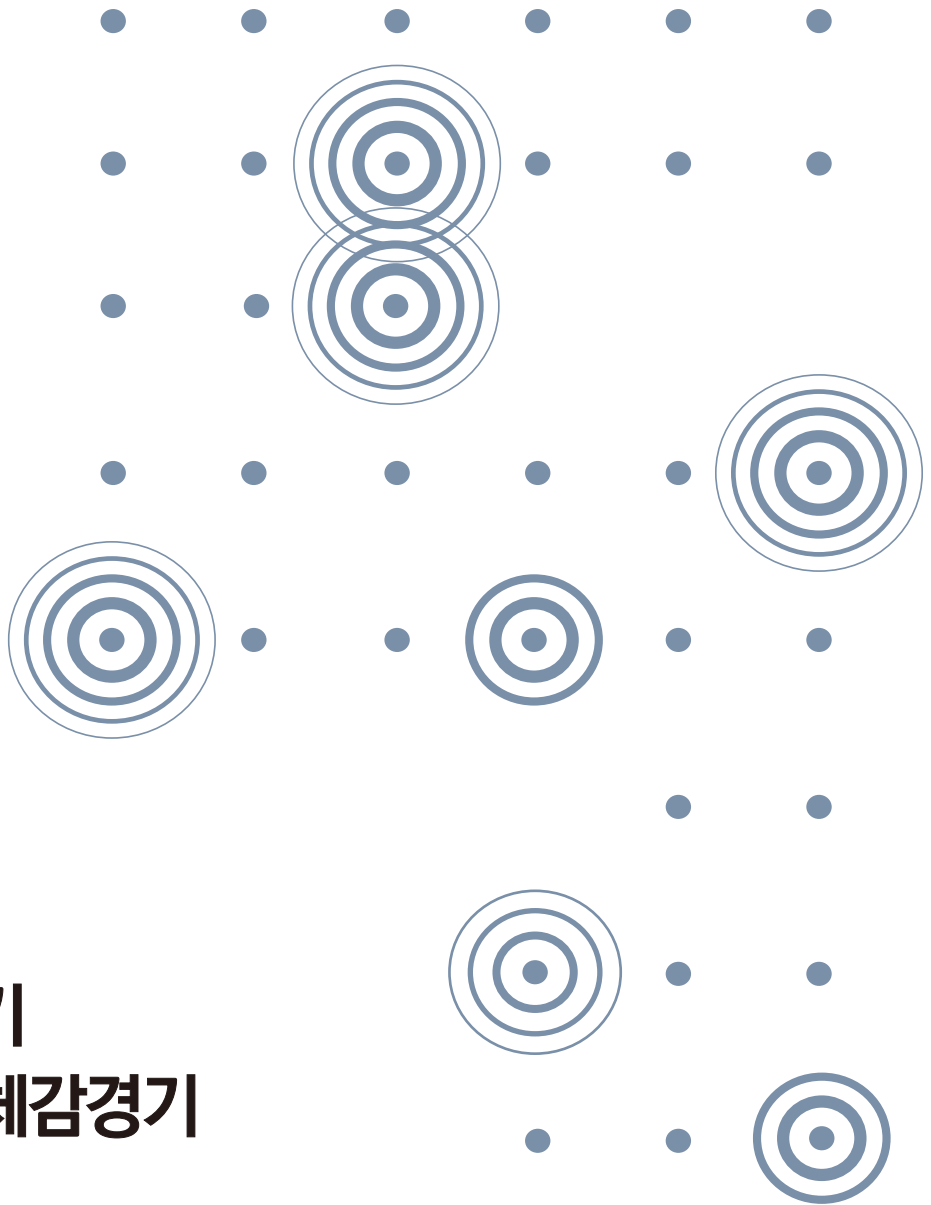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81호 2023. 10. 16



—
2023년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81호

2023년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발행인 박형수

편집인 백선혜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3년 10월 16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02-2149-1223
jbs66@si.re.kr

유인혜 연구원
02-2149-1073
inhye215@si.re.kr

요약	3
I. 최근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CSI)	9
부록 1. 소비자태도지수 산출방법	20
부록 2. 2023년 3/4분기 주요 조사결과	21

요약

서울의 서비스업 생산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도 상승 전환

2023년 2/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9.4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해 1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2023년 7월 「제조업생산지수」도 111.0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상승하며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7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2.8%에 달하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서울 전체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

2023년 7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517만 8천 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4만 2천 명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의 514만 2천 명보다는 3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 취업은 전월 88만 3천 명보다 1만 명 증가한 89만 3천 명이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다. 이러한 청년층 취업 여건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면에서 6월 -1.8%에 비해 7월 -0.8%로 소폭 감소하였다.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지수는 2분기 연속 상승하며 기준치(100)에 근접

2023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4.9p 오른 95.9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기준치(100)에 근접했다. 3분기 「소비자태도지수」를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5.5,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5.3으로 여전히 두 지수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판단지수도 모두 2023년 1분기 이래 상승세를 지속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5.3p 상승한 64.3으로 나타났고,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3.8p 오른 77.0으로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23년 2분기에 110.9로 약간 하락하였다가 3분기 들어 3.3p 상승한 114.2를 기록했고,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 대비 2.7p 상승하며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78.2로 전 분기 대비 5.0p 상승하며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3.2p 상승한 77.3으로 나타나 최근 5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I. 최근 서울경제 여건

I 서울의 서비스업 생산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 제조업 생산도 상승 전환¹⁾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

- 2023년 2/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9.4²⁾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
 -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23년 2/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해 1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2%), ‘도매 및 소매업’(-1.8%), ‘교육 서비스업’(-1.1%) 등은 다소 부진
 - 반면, ‘운수 및 창고업’(2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3%), ‘부동산업’(21.2%) 등은 호조

[표 1] 서울시 서비스업생산지수(불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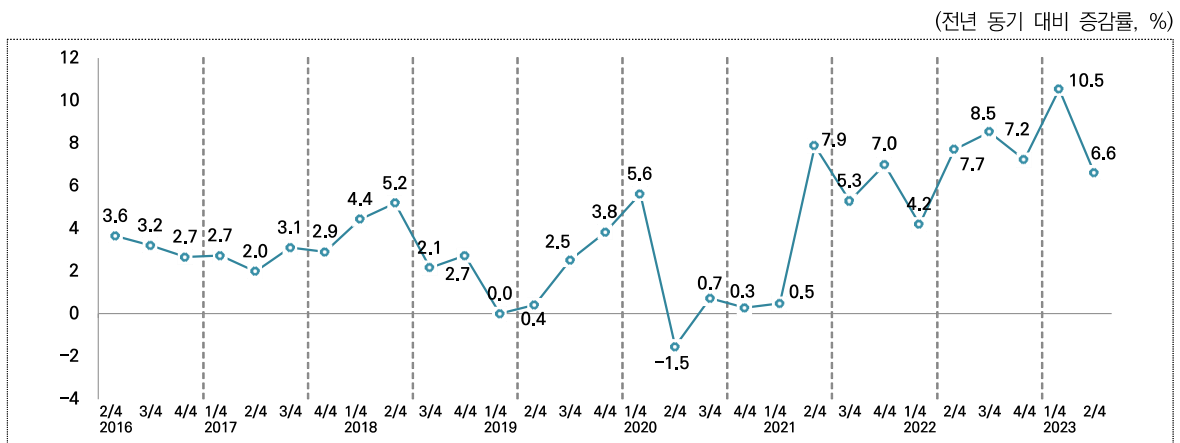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p)
총지수	103.4	113.2	104.3	112.0	112.2	121.4	115.3	119.4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5.3	7.0	4.2	7.7	8.5	7.2	10.5	6.6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 1) 2023년 3/4분기 기준,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분기별로 자료를 공표함에 따라 2023년 2/4분기가 가장 최근 자료인 반면, 월별 공표인 「제조업생산지수」는 2023년 7월이 가장 최근 자료임
- 2) 통계청은 2023년 5월 최근의 시·도별 서비스업 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연도를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공표함. 또한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감소세를 보이다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2023년 7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1.0³⁾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7.0% 상승
 - 2023년 7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해 경기 저점을 예고

[표 2] 서울시 제조업생산지수(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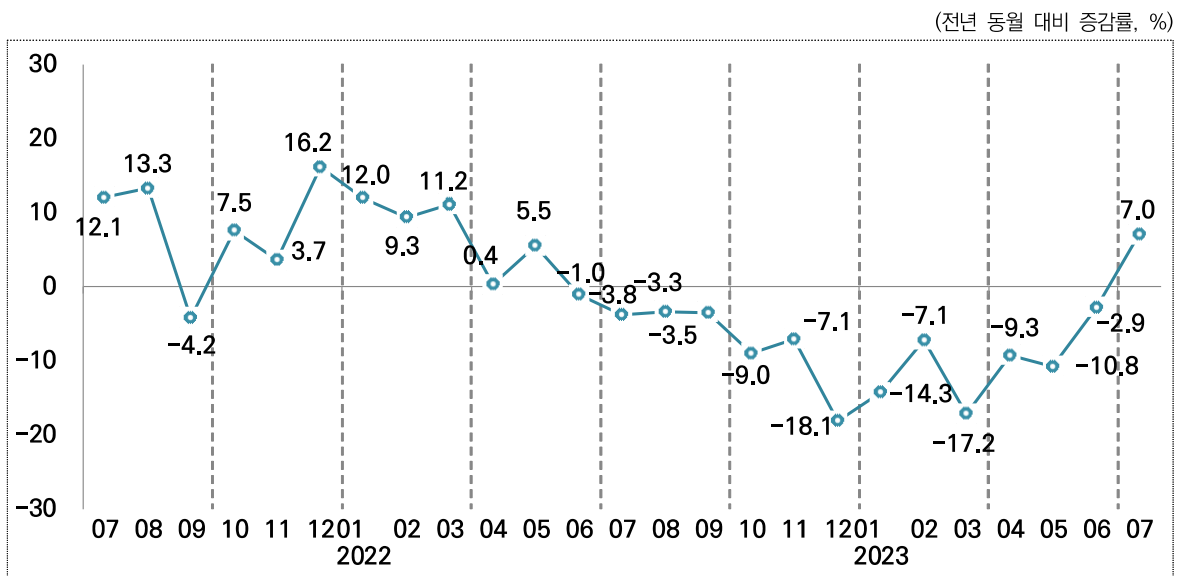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2년						202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총지수	103.7	107.7	108.8	107.8	107.8	110.5	94.4	93.6	104.8	100.2	92.0	101.3	111.0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3.8	-3.3	-3.5	-9.0	-7.1	-18.1	-14.3	-7.1	-17.2	-9.3	-10.8	-2.9	7.0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그림 2]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 증감률(원지수)

3) 「제조업 생산지수」는 2023년 1월 자료 공표 시 대표품목 변경에 따른 기중치 변경,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인해 과거 시계열이 변경(단위: 2020=100)되었고, 2020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20년 이후 지수는 1자리로 작성됨. 전국지수는 연쇄 라스파이레스, 지역 지수는 고정 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작성됨.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도 7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

-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⁴⁾는 2023년 7월 137.1로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이 증가세를 나타냄
 - 특히, 2023년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해 올해 가장 높은 증감률을 기록

[표 3]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경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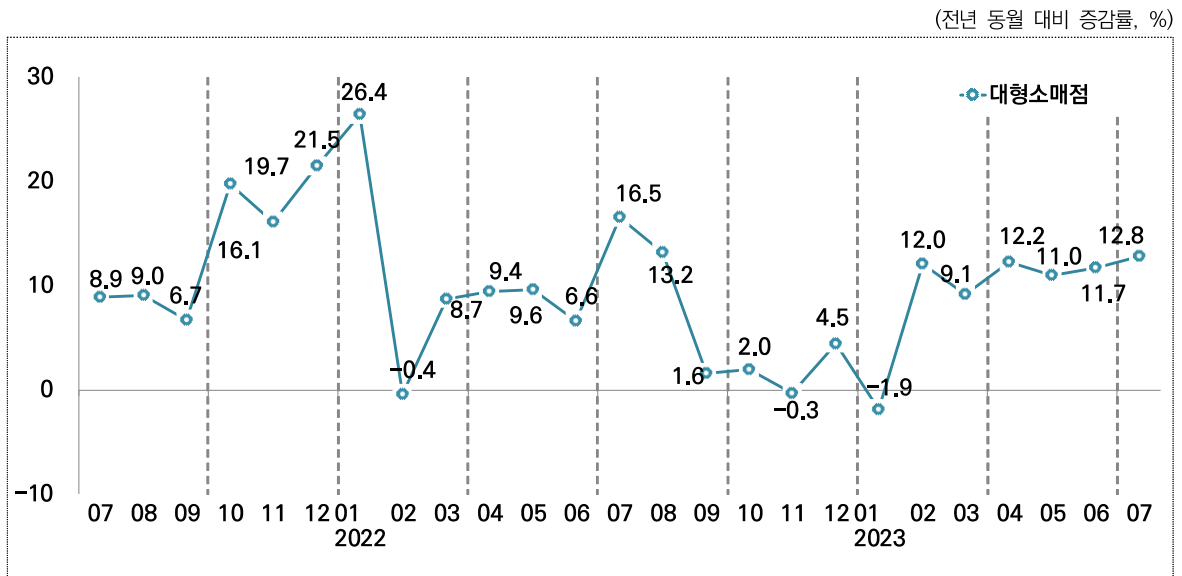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2년			2023년		
	5월	6월	7월	5월	6월 p)	7월 p)
대형소매점 경상지수	132.6	118.0	121.5	147.2	131.8	137.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9.6	6.6	16.5	11.0	11.7	12.8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1: 2020=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3]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4)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는 2분기부터 반영 예정)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울렛 등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울렛이 제외되었음

- 부문별로는 「백화점 판매액지수」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모두 상승을 유지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52.7로 전년 동월 대비 14.7% 상승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감률을 기록
 - 서울의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또한 109.1로 2022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하였으나 「백화점 판매액지수」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보임

[표 4] 서울시 대형소매점 부문별 판매액지수(경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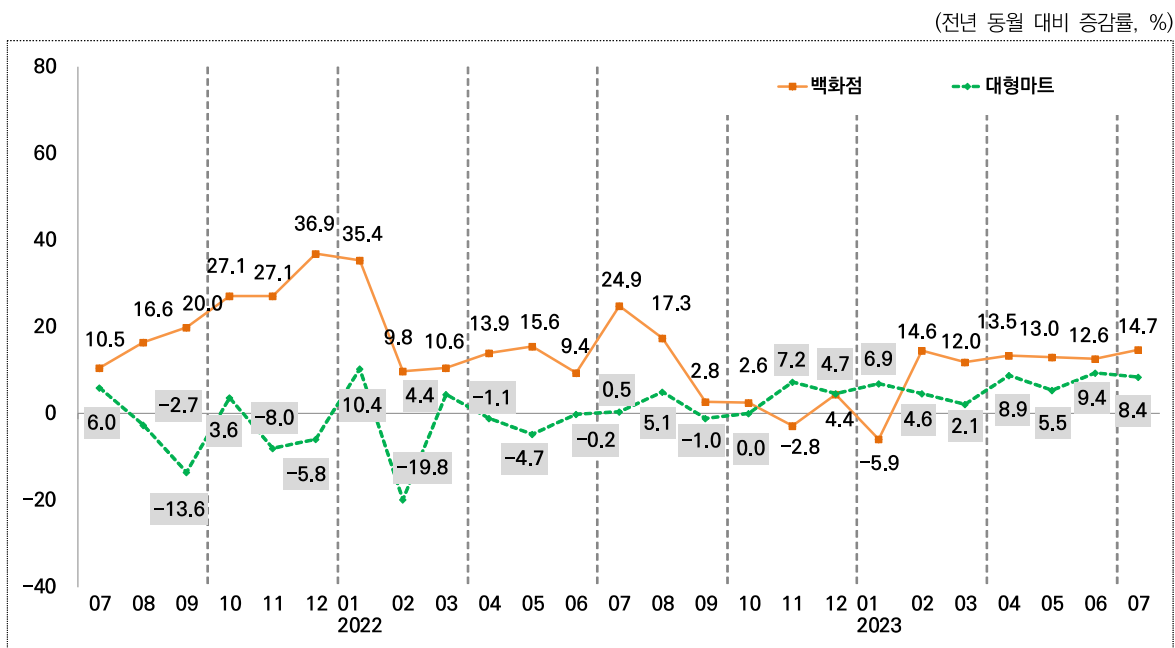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2년			2023년		
	5월	6월	7월	5월	6월 p)	7월 p)
백화점 경상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152.5 (15.6)	132.7 (9.4)	133.1 (24.9)	172.4 (13.0)	149.4 (12.6)	152.7 (14.7)
대형마트 경상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96.7 (-4.7)	91.7 (-0.2)	100.6 (0.5)	102.0 (5.5)	100.3 (9.4)	109.1 (8.4)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1: 2020=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서울의 대형소매점 부문별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전체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

- 2023년 7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⁵⁾는 517만 8천 명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
 -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만 2천 명 감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의 514만 2천 명보다 3만 6천 명이 증가
- 반면,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소폭 감소
 - 2023년 7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월 88만 3천 명보다 1만 명 증가한 89만 3천 명을 나타냄
 - 이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도 6월 -1.8%에서 7월 -0.8%로 감소폭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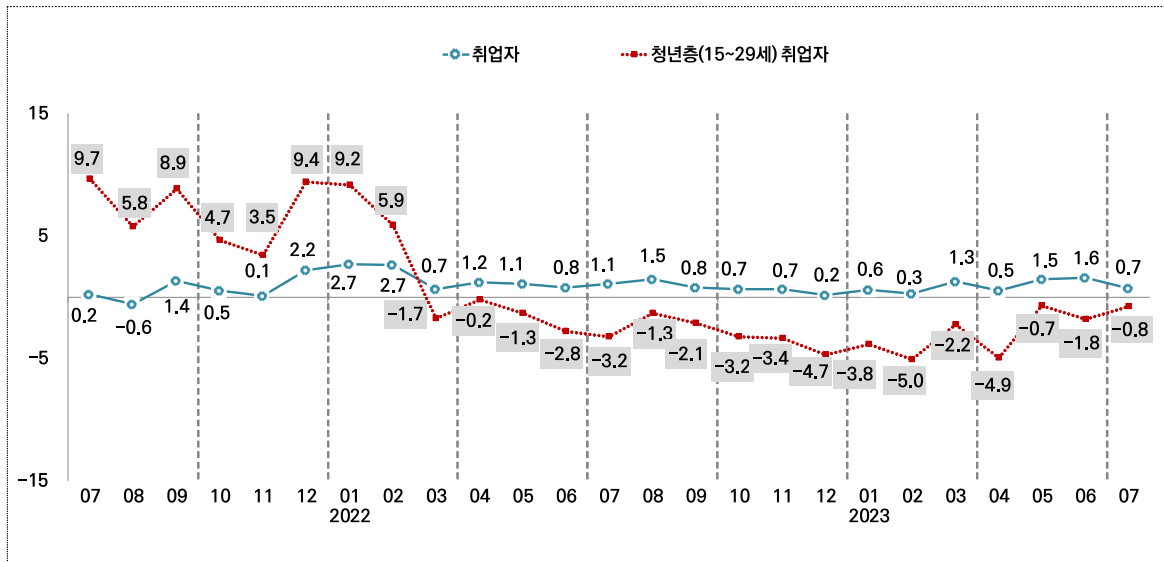
[표 5] 서울시 취업자 수 및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2022년			2023년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취업자 계	5,145	5,137	5,142	5,220	5,220	5,178
청년층(15~29세) 취업자	912	899	900	906	883	8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서울의 취업자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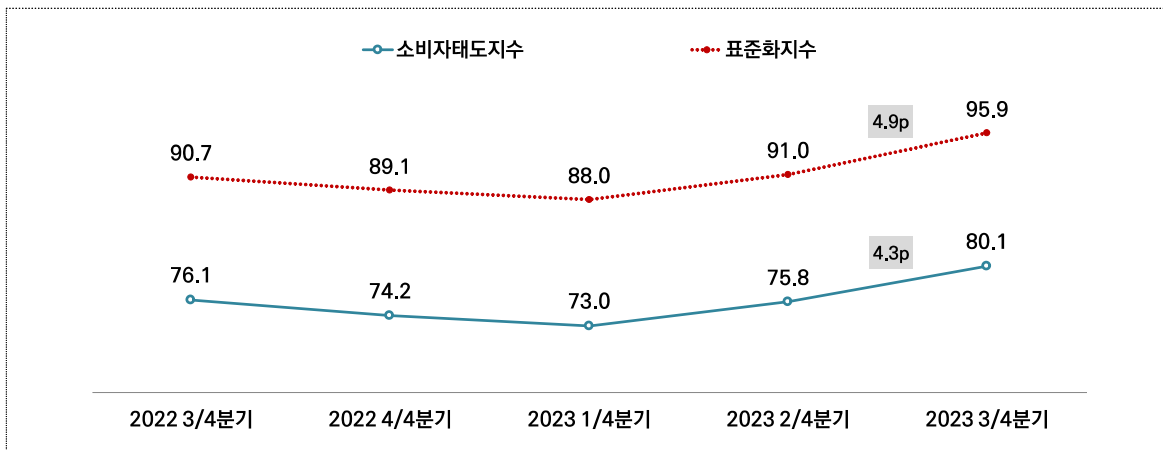
5)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CSI)

I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지수는 2분기 연속 상승하며 기준치에 근접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⁶⁾는 2분기에 이어 2023년 3분기에도 상승세 지속

- 시민의 체감경기를 종합하는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⁷⁾를 기준으로 4.9p 상승
 - 2023년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4.9p 오른 95.9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기준치(100)에 근접
 -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지수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6.9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30대 이하와 60대가 전 분기 대비 각각 5.3p, 5.1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그림 6]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표 6] 가구소득 및 가구주 연령별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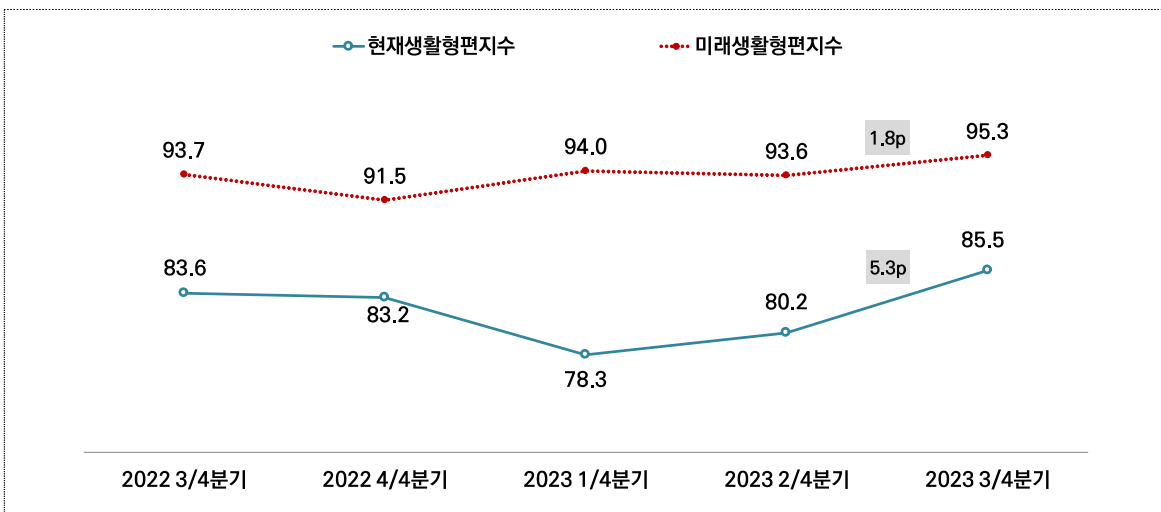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4분기	2023년 3/4분기	전 분기 대비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75.0	81.8	+6.9
	2,400~3,600만 원 미만	73.5	76.4	+3.0
	3,600~4,800만 원 미만	78.0	80.5	+2.5
	4,800~6,000만 원 미만	75.3	78.9	+3.6
	6,000~7,200만 원 미만	74.1	79.8	+5.6
	7,200만 원 이상	77.6	81.8	+4.3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80.4	85.7	+5.3
	40대	71.1	75.1	+4.0
	50대	71.9	73.4	+1.5
	60대	75.5	80.6	+5.1

6) 5가지 개별 CSI 지수를 통해 산정되는 종합 소비자 체감경기지수(CSI)로서, 소비자태도지수의 산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고

7)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함

2023년 3/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상승폭 확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상승 전환⁸⁾

- 3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5.5,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5.3으로 여전히 두 지수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상승세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5.3p 오른 85.5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미래생활형편지수」도 95.3으로 전 분기 대비 1.8p 올라 상승으로 전환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상승한 가운데, 가구소득에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11.1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연령대에서는 30대 이하가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미래생활형편지수」의 경우에는 7,200만 원 이상 가구(6.0p)와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5.9p)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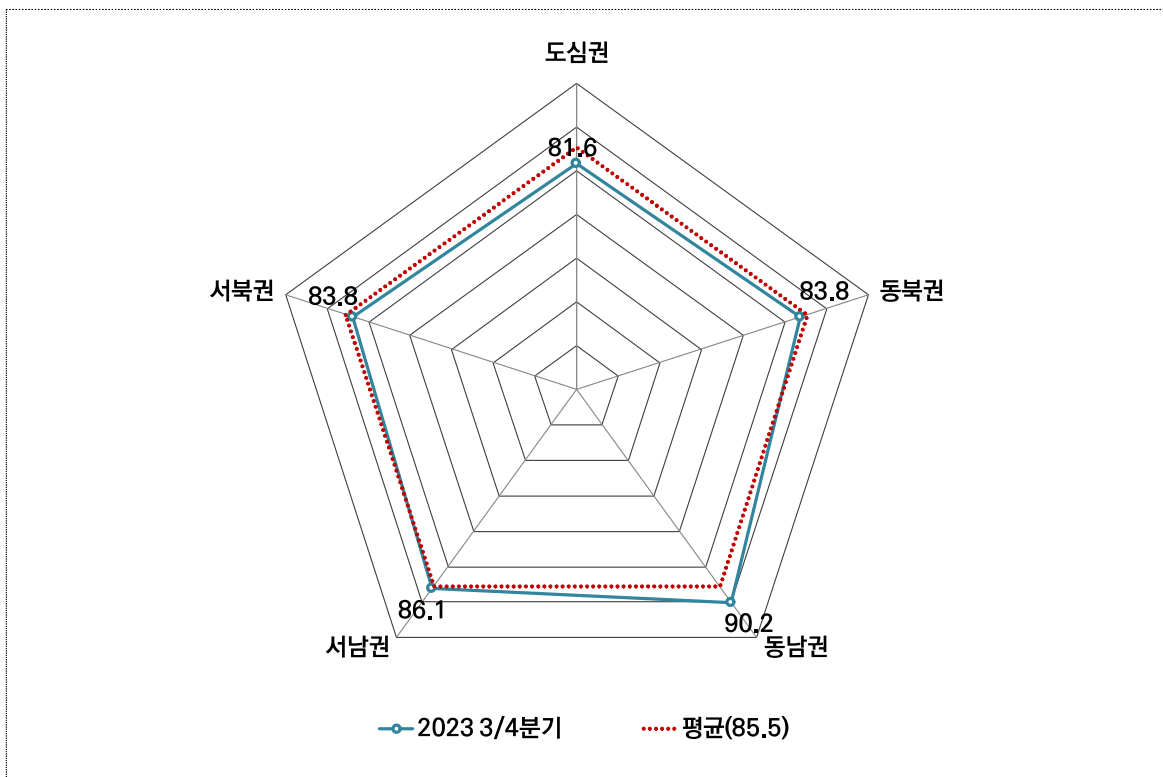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표 7] 가구소득별 서울의 현재 및 미래생활형편지수

구분	2023년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		2023년 3/4분기 미래생활형편지수		
	현재	전 분기 대비	미래	전 분기 대비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80.2	+7.8	89.9	-0.4
	2,400~3,600만 원 미만	81.4	+2.6	95.2	-0.2
	3,600~4,800만 원 미만	84.4	+2.4	93.9	-4.2
	4,800~6,000만 원 미만	82.8	+4.2	94.6	+5.9
	6,000~7,200만 원 미만	89.7	+11.1	92.3	-0.4
	7,200만 원 이상	89.6	+4.4	100.9	+6.0

8) '생활형편'은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을 고려하여 가계생활을 해나가는 수준으로 살림살이의 형편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생활형편(1년 전 대비 현재의 생활형편)과 미래생활형편(현재 대비 1년 후 생활형편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 서울시민들이 1년 후 가계 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는 '가계소득 증가'⁹⁾
 - 시민들은 '가계소득 증가'(46.4%)를 가계 생활형편 호전의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고, 그 외에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13.2%), '가계부채 감소'(11.9%) 등도 지목
 -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 증가'를 생활형편 호전의 최우선 요인으로 응답
 -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가계소득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53.4%)와 50대(52.1%)는 '가계소득 증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60대는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21.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3년 3/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동남권이 가장 높았고, 도심권이 가장 저조
 - 동남권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0.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서남권 86.1, 동북권과 서북권 각각 83.8, 도심권 81.6 순으로 조사
- 2/4분기와 비교해 볼 때 서남권이 5개 권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특히, 서남권의 상승폭은 전 분기 대비 9.0p(2/4분기 77.1 → 3/4분기 86.1)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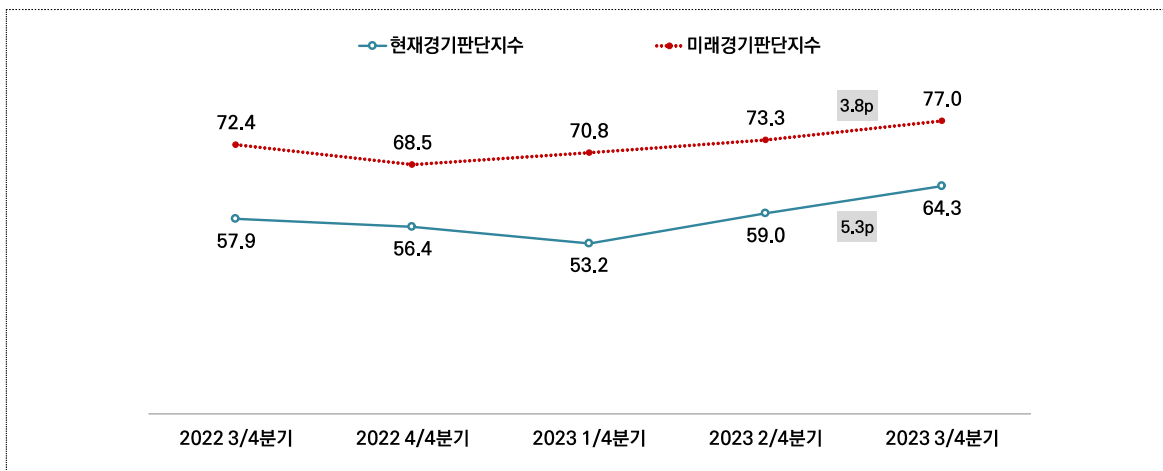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5개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9) 서울시민의 24.6%(295명)는 1년 후 '미래생활형편 호전'을 전망했고, 29.3%(351명)는 '미래생활형편 악화'를 전망했으며, 전 분기 대비 미래생활형편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미래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경기판단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지수 모두 2023년 1분기 이래 상승세를 지속¹⁰⁾

- 2023년 3/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5.3p 상승한 64.3으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지속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3.0p)를 제외한 소득계층이 전 분기 대비 모두 상승한 가운데,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11.3p로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그 중 상승폭은 60대와 40대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전 분기 대비 3.8p 상승한 77.0으로,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
 -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계층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 분기 대비 변화가 미미한 반면,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대별에서도 모든 계층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60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그림 9]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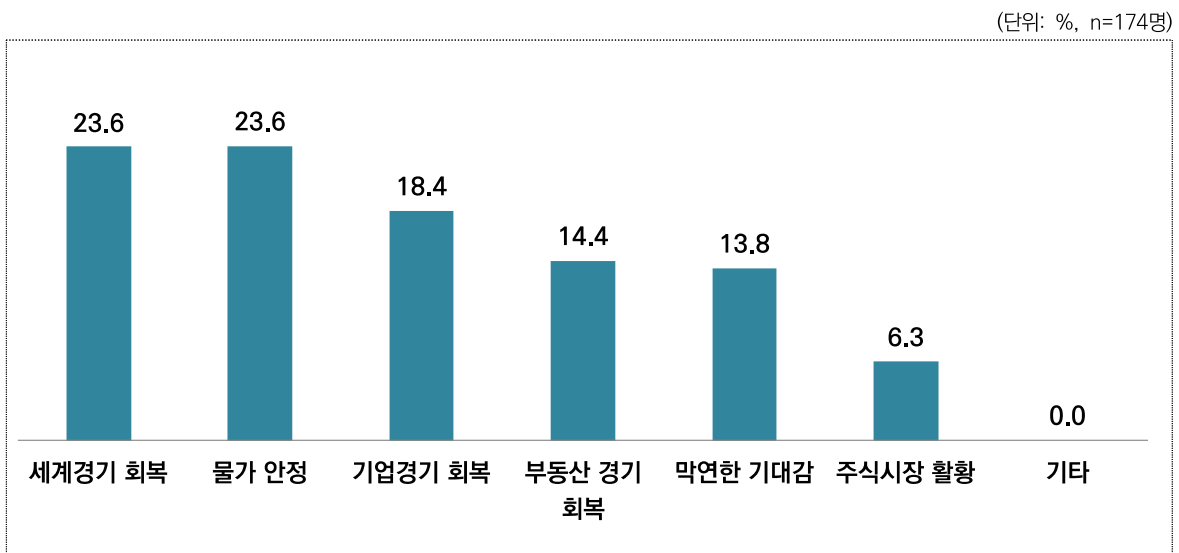
[표 8] 가구소득별 서울의 현재 및 미래경기판단지수

구분	2023년 3/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		2023년 3/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		
	현재	전 분기 대비	미래	전 분기 대비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70.4	+5.2	83.0	+8.8
	2,400~3,600만 원 미만	60.1	+5.3	75.0	+5.0
	3,600~4,800만 원 미만	65.6	+7.7	76.9	+1.9
	4,800~6,000만 원 미만	61.5	-3.0	73.9	+0.6
	6,000~7,200만 원 미만	65.3	+11.3	75.8	+2.4
	7,200만 원 이상	63.8	+4.8	77.5	+4.1

10) '서울지역 경기'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경기(1년 전 대비 현재의 서울지역 경기)와 미래경기(현재 대비 1년 후 서울지역 경기 전망)를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미래에 경기 호전을 예상한 주된 이유는 ‘세계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¹¹⁾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는 ‘세계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연령대별로는 주된 이유가 모두 상이
 - ‘세계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에 대한 응답이 각각 23.6%로 가장 높으며, ‘기업경기 회복’(18.4%), ‘부동산 경기 회복’(14.4%) 등도 우선적 이유로 응답
 - 가구소득별로는 2,4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세계경기 회복’, 2,400만 원 미만 가구와 6,0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의 이유로 인식
 - 연령대별로는 경기호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한 가운데, 30대 이하는 ‘세계경기 회복’(26.0%), 40대는 ‘물가 안정’(23.8%)과 ‘부동산 경기 회복’(23.8%), 50대는 ‘기업경기 회복’(33.3%), 60대는 ‘막연한 기대감’(30.0%)을 최우선의 이유로 인식
- 올해 7월까지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차츰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3년 8월 다소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3년 4월 4.1% → 5월 3.8% → 6월 3.4% → 7월 2.9% → 8월 3.9%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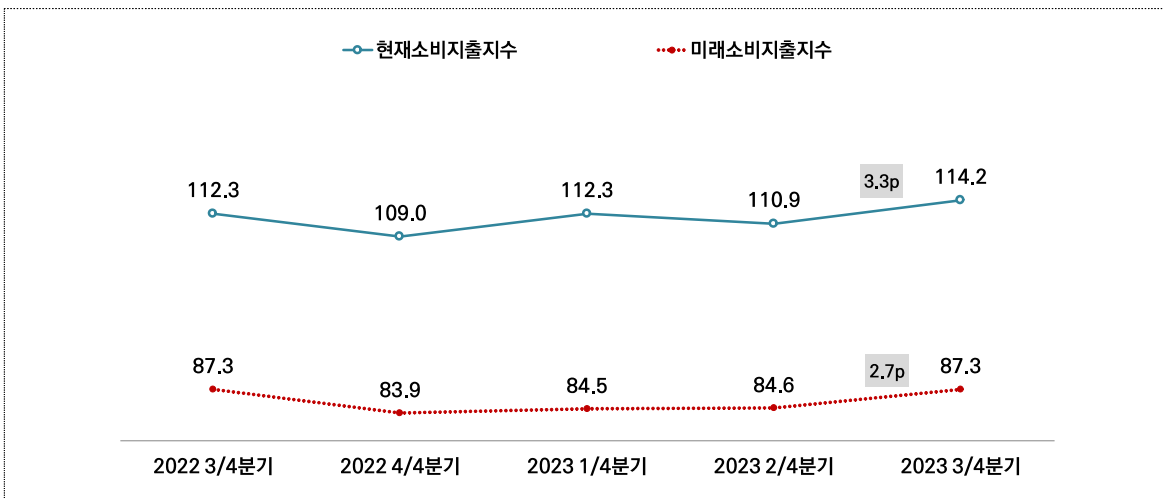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지역 경기가 1년 후 호전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

11) 1년 후 미래경기에 대해 서울시민의 14.5%(174명)는 ‘호전’, 47.3%(567명)는 ‘악화’를 전망했는데, 이 가운데 미래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함

12)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등락률(KOSIS 재인용)

3/4분기 들어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도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상승 추세¹³⁾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23년 2분기에 110.9로 약간 하락하였다가 3분기 들어 3.3p 상승한 114.2를 기록
 -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1.1p)와 7,200만 원 가구(0.0p)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이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가 11.9p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60대에서 가장 크게 상승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7p 상승하며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
 -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계층이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그 중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와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각각 5.7p씩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도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4.0p 상승



[그림 11]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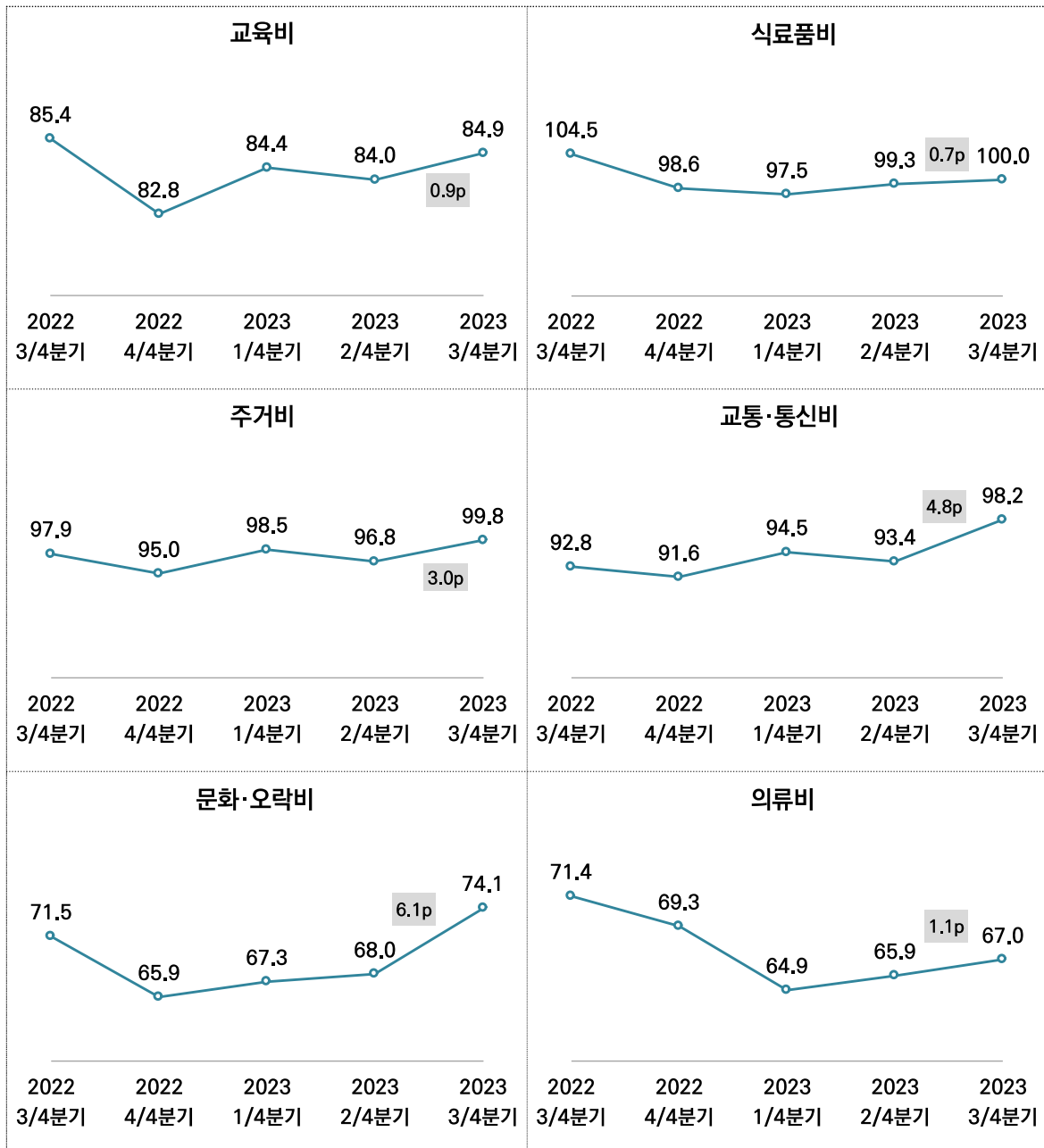
[표 9] 가구소득별 서울의 현재 및 미래소비지출지수

구분	2023년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		2023년 3/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		
	현재소비지출지수	전 분기 대비	미래소비지출지수	전 분기 대비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108.5	-1.1	83.7	+2.0
	2,400~3,600만 원 미만	112.5	+5.2	81.1	+0.2
	3,600~4,800만 원 미만	113.6	+1.3	89.2	+5.7
	4,800~6,000만 원 미만	119.7	+11.9	84.4	+2.5
	6,000~7,200만 원 미만	115.5	+5.6	90.0	+5.7
	7,200만 원 이상	114.6	+0.0	91.4	+2.1

13) '소비지출'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소비지출(1년 전 대비 현재의 소비 지출)과 미래소비지출(향후 1년 후 소비지출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지수는 기준치 100보다 클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임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중 '문화·오락비'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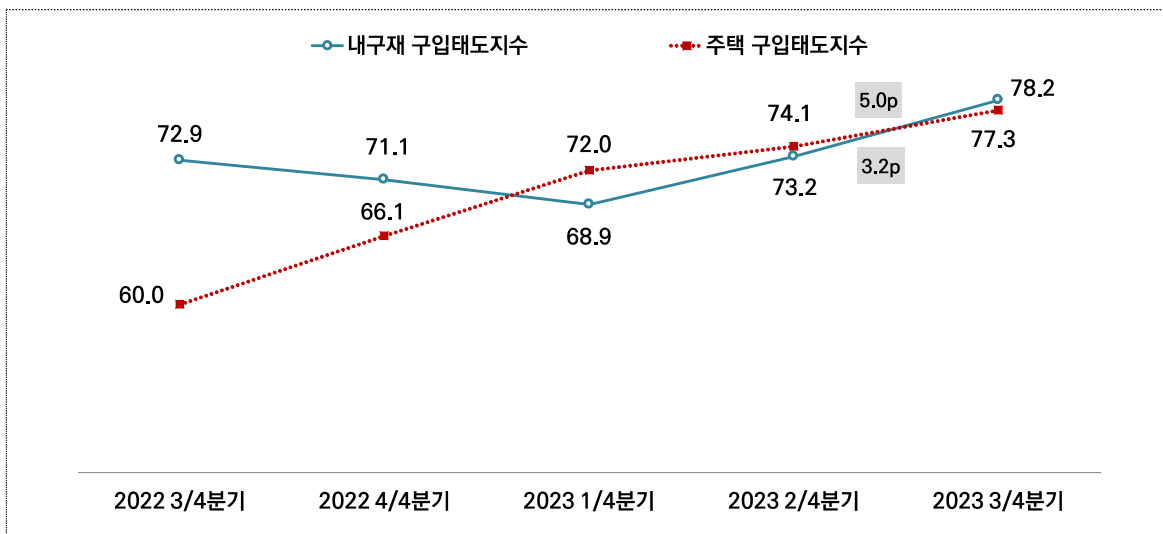
- 2023년 3/4분기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품목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문화·오락비'가 6.1p로 크게 상승
 - 모든 품목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문화·오락비'가 전 분기 대비 6.1p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그다음은 '교통·통신비'(4.8p), '주거비'(3.0p)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식료품비'는 상승폭이 가장 낮았으나 품목 중 유일하게 기준치(100.0)에 도달한 품목에 해당



[그림 12]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와 주택의 구입태도지수¹⁴⁾는 지난 2023년 1/4분기 이래로 모두 상승세

- 2023년 3/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78.2로 전 분기 대비 5.0p 상승하며 2분기 연속 상승
 -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특히,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2.9p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가 상승했고, 그 중 30대 이하에서 가장 크게 상승
- 2023년 3/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3.2p 상승한 77.3으로, 최근 5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특히 50대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이와 관련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2023년 2월 96.7 → 3월 96.1 → 4월 95.8 → 5월 95.7 → 6월 95.7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7월 95.9로 소폭 상승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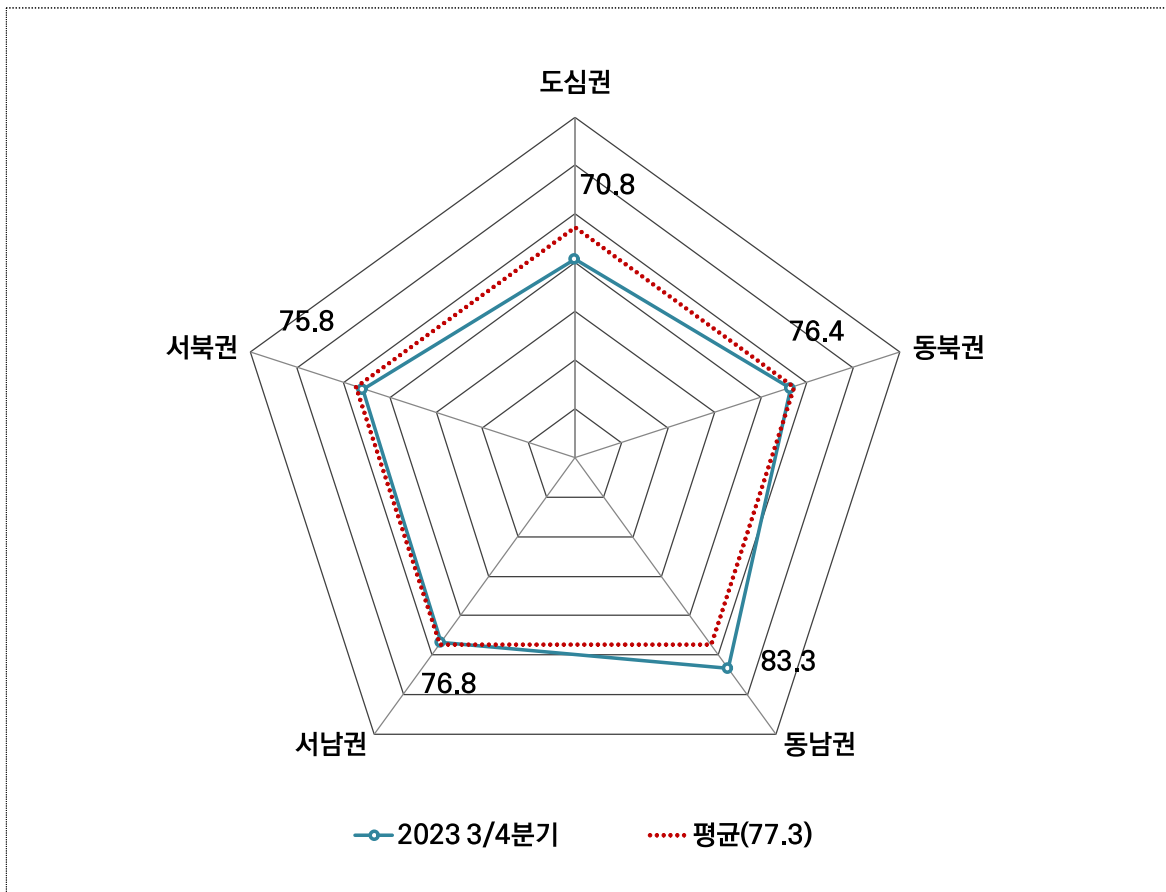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14)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지금이 가구에서 사용하는 대형물건(예: 가구, 승용차, 냉장고 등)과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적정 시기인가를 조사하여 지수로 산출한 것임. 지수는 기준치 100보다 클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임

15) 2021년 9월 기준,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지수의 기준시점(단위)이 기존 '2017.11=100'에서 '2021.06=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수의 흐름과 변동률은 동일함(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KOSIS, 유형별 매매가격지수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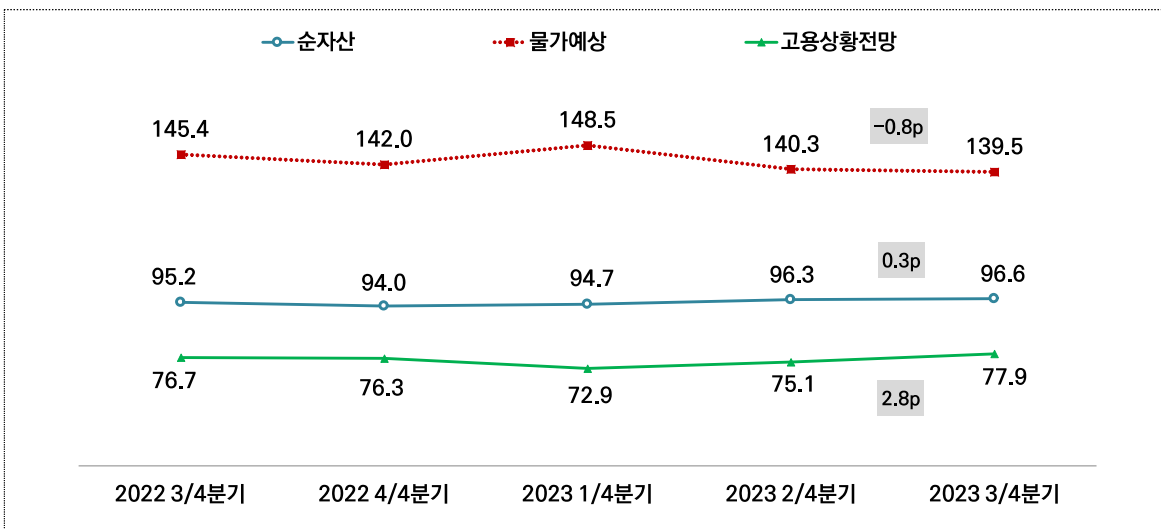
- 2023년 3/4분기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대 권역 중 동남권이 가장 높은 반면, 전 분기 대비 상승폭으로는 서남권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동남권(83.3)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서남권(76.8), 동북권(76.4), 서북권(75.8), 도심권(70.8) 순으로 나타남
 - 도심권(-0.6p)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중 서남권의 상승폭이 5.5p로 가장 크게 조사



[그림 14] 서울의 5개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분기 연속 상승한 반면, 물가예상지수는 소폭 하락¹⁶⁾

- 2023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96.6으로 전 분기 대비 0.3p 소폭 상승
 -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는 상승하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50대와 60대는 하락을 보임
 -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로 ‘금융자산 증가’가 37.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소득 증가’(29.6%), ‘부채 감소’(23.6%)의 순으로 조사
 - 대부분의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금융자산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소득 증가’는 3,600~6,000만 원 미만 가구와 연령대에서는 3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7.9로 전 분기 대비 2.8p 상승했지만 5분기 연속 70대 수준을 유지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임
 -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상승했으며, 특히 60대에서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
- 「물가예상지수」는 139.5로 전 분기 대비 0.8p 하락했고, 2021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130대로 하락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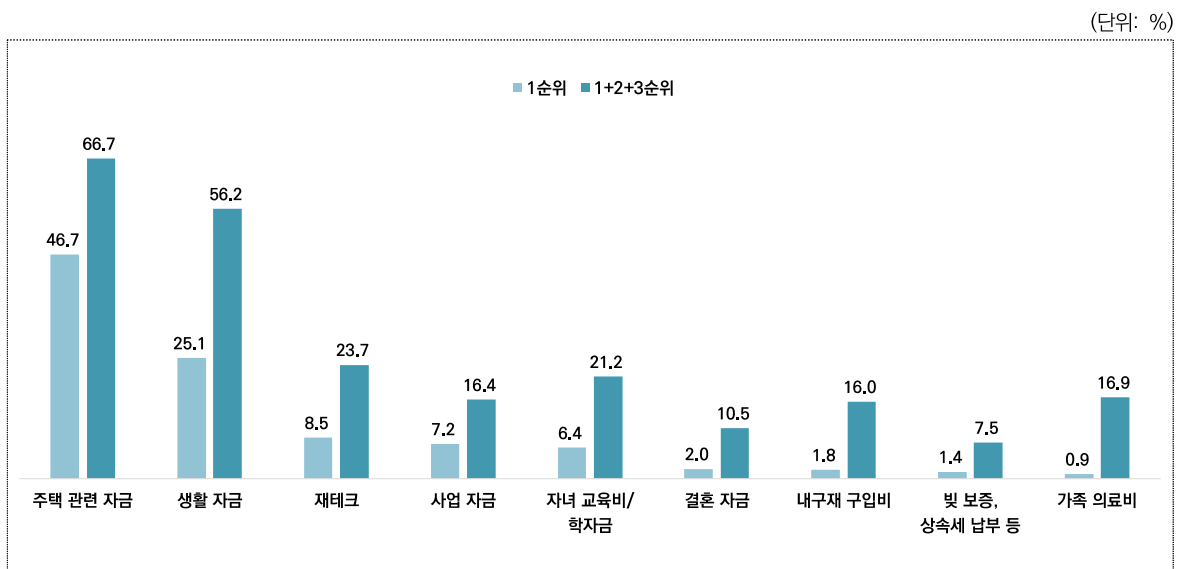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의 순자산·고용상황전망·물가예상지수

16) ‘순자산’이란 가구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가계자산에서 은행 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현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1년 전 대비 현재의 순자산 증감 정도를 조사하여 순자산지수를 산출함. ‘물가’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1년 전 대비 물가 예상 정도를 조사하여 물가예상지수를 산출함. 고용상황전망지수는 과거 1년 동안의 고용상황 정도를 기준으로 향후 1년 후 예상되는 고용상황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체감경기 변동에 영향을 주는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70% 이상 차지

- 2023년 3/4분기 현재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 분기 대비 0.6%p 감소
 - '가계부채 보유' 응답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가운데 절반을 상회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평균 21.2%로 전 분기의 21.4%와 비교해 소폭 하락¹⁷⁾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로는 '원리금 상환'이 66.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30.1%), '상환 안 함'(3.2%) 등의 순서를 나타냄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압도적 비중 차지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46.7%)과 '생활 자금'(25.1%)이었는데, 전 분기에 비해 응답 비율은 둘 다 소폭 감소
 -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 용도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2,400만 원 미만 가구와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생활 자금'의 비중도 각각 37.8%, 33.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주택 관련 자금'은 모든 연령대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그중 50대와 60대의 경우 '재테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복수 응답(1+2+3순위)의 경우에도 '주택 관련 자금'(66.7%), '생활 자금'(56.2%)과 '재테크'(23.7%)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16]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17)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

부록 1. 소비자태도지수 산출방법

- 종합 소비자 체감 경기지수(CSI)인 ‘소비자태도지수’는 아래의 5개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단, 특정 개별지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값 적용)
 - 5개 주요 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판단지수, 내구재구입지수
 - 산출 방식

$$\text{소비자태도지수} = \frac{(a + b + c + d + e)}{5}$$

a : 현재생활형편지수
b : 미래생활형편지수
c : 현재경기판단지수
d : 미래경기판단지수
e : 내구재구입지수

- 위 5개 항목별(*a~e*) CSI는 소비자의 경기 체감 및 전망을 5점 척도로 질문하되, 각 척도별로 0~200점의 수치를 부여한 후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
 - ‘매우 감소, 매우 악화’ 0점, ‘다소 감소, 다소 악화’ 50점, ‘동일, 유지’ 100점, ‘다소 증가, 다소 호전’ 150점, ‘매우 증가, 매우 호전’ 200점

$$CSI_{a \sim e} = \left(\frac{0 \sum_{ij \in n_1} n_{ij1} + 50 \sum_{ij \in n_2} n_{ij2} + 100 \sum_{ij \in n_3} n_{ij3} + 150 \sum_{ij \in n_4} n_{ij4} + 200 \sum_{ij \in n_5} n_{ij5}}{\sum_{ij} n} \right)$$

i : 권역을 나타내는 첨자 (*i* = 1(도심권), 2(서북권), 3(서남권), 4(동남권), 5(동북권))
j : 가구주 연령을 나타내는 첨자 (*j* =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n_{ij} : *i* 권역, *j* 가구주 연령 그룹 내 조사된 응답 가구 수
n : 조사된 전체 응답 가구 수 ($(n_1, n_2, n_3 \dots n_n) \in n$: 문항별 조사된 응답 가구 수)

부록 2. 2023년 3/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시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우리 조사와 유사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임
 - 한국은행의 ‘202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 대비 0.1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22년 3/4분기	90.7	83.6	93.7	57.9	72.4	72.9	60.0
2022년 4/4분기	89.1	83.2	91.5	56.4	68.5	71.1	66.1
2023년 1/4분기	88.0	78.3	94.0	53.2	70.8	68.9	72.0
2023년 2/4분기	91.0	80.2	93.6	59.0	73.3	73.2	74.1
2023년 3/4분기	95.9	85.5	95.3	64.3	77.0	78.2	77.3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22년 3/4분기	112.3	87.3	95.2	76.7	145.4
2022년 4/4분기	109.0	83.9	94.0	76.3	142.0
2023년 1/4분기	112.3	84.5	94.7	72.9	148.5
2023년 2/4분기	110.9	84.6	96.3	75.1	140.3
2023년 3/4분기	114.2	87.3	96.6	77.9	139.5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임 (2023년 3/4분기 조사 시점은 2023년 8월 1일~ 8월 16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